



그림에 철학을 담자!

일러스트란 이제 글을 보조하기 위한 부속물이 아니다. 일러스트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 독자들에게 점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예쁜 그림보다는 그림 안에 작가의 철학을 담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조원진에게 일러스트는 그림의 미이다. 일러스트레이터답지 않게 그는 다양한 이력을 지녔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나 졸업 후 한 일은 마케팅이었다. 사람들을 알지 않으면 디자인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결국 마케팅이란 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마케팅과 캐릭터 기획, 상품개발 등을 거쳐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캐릭터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2002년도 한국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만큼 캐릭터 분야의 일을 더 많이 했다.

일러스트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가 단지 그림만 잘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는 데 이유가 있다. 그에겐 글이 함께 따라다닌다. 여기서 독특한 이력이 돌출된다. 실은 문학지망생(?)이었다는 것. 신춘문예에도 응모할 정도로 열성이었다. 물론 낙방을 하였지만 그러한 시도가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바로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책. “현재 출판시장에 불고 있는 바람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제까지와 같은 텍스트를 위한 삽화가 아니라 삽화를 위한 텍스트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답은 하나였어요.”

그동안 틈틈이 습작을 해둔 글들을 모으고 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직에 대해 나름대로 느낀 바를 적었다. 아니, 그렸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한 끝에 생활철학 동화인 《눈먼 아이가 그린 풍경》을 내놓았다. 기획서를 만들고 직접 출판사를 찾아다니는 일도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찾은 출판사인 아이에듀테인먼트는 그의 신념을 지켜줬다. “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출판사로 바꾸진 않았어요. 도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지 쉽고 예쁜 그림과 글만을 요구하는 출판사들이 많았거든요. 아이에듀테인먼트는 그걸 존중해 줬어요. 엽기 문화가 판치는 현실이지만 따뜻한 메시지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이후엔 《마음을 열면》이란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도 냈다. 외톨이로 외롭게 지내던 아이가 친구들 도움으로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이다. 역시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가 자신의 독자로 보고 있는 층은 주류에서 벗어난 20%이다. 주류인 80%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은 문화란 올바른 방향으로 결국 발전하고 변할 것이라는 소신 때문이었다. 이런 소신 탓인지 그는 본의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한다.

“제 그림이 어둡다는 평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밝음이란 무엇

이나 하는 거죠. 지나치게 밝으면 깊이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밝다, 어둡다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이분법에 불과하죠. 그건 하나의 표현 양식일 뿐이죠.”

그는 아직 많은 실험과 시도를 해보고 싶은 작가이다. 수작업도 하고 컴퓨터 작업도 한다. 때로는 프린트된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그에게 도구란 붓이든 마우스든 다를 바가 없다. “한동안 컴퓨터 작업도 많이 했지만 이젠 다시 수작업에도 애착이 가요. 인터뷰 끝나면 물감 사러 갈 생각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신념은 무엇일까.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가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사진이든, 글씨 디자인이든 모두 일러스트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눈먼 아이가 그린 풍경》을 만들 때 행간과 자간 사이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씨도 일부러 다양한 크기로 배치했죠.” 단지 그림만이 일러스트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뒤집어진다. 그의 진보적인 디자인관이 엿보인다.

“저는 제 책이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였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사랑을 하고 책을 읽고 나서 선물하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지는 않지만 제 책을 산 사람들은 다시 산다는 건 내 글과 그림에 생명력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작가를 문자 의외의 답이 나온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디자이너가 아니란다. 소설가 이외수. 그림 그리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이외수의 글이었다. 기능적인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재능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외수의 책을 읽고 작업을 하려는데 뭐랄까, 동기가 없이 그림만 그렸을 때와는 달랐어요. 왜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나아가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됐죠. 순간의 깨달음 같은 거겠죠.”

그는 곧 세 번째 철학동화 시리즈로 《세상 속으로》를 내놓는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세상 속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나서는 이야기이다. 그림이라는 세상 속으로 나온 지 6년째인 일러스트레이터 조원진이 가진 두려움은 거의 없어 보인다.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가 꿈꾸는 그림이 만들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 같다. **▶▶▶** 취재 강경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다. 외톨이로 외롭게 지내던 아이가 친구들 도움으로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이다. 역시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가 자신의 독자로 보고 있는 층은 주류에서 벗어난 20%이다. 주류인 80%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은 문화란 올바른 방향으로 결국 발전하고 변할 것이라는 소신 때문이었다. 이런 소신 탓인지 그는 본의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한다.